

## 청소년의 성주체성에 관한 연구

홍 봉 선(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I. 문제제기

근래 몇 년 사이에 우리사회에서 성이 이슈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오양, 백양 비디오'와 '서갑숙 자서전' 그리고 영화 '거짓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대중문화 확산의 첨병역할을 하는 인터넷, 책,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외에도 몇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연예인의 사적 성행동과 관련이 있거나 청소년 연령층의 성을 다룬 영화 이어서인지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다.<sup>1)</sup> 또한 관련인사나 관련물이 어떤식으로든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인권 혹은 사생활의 보호에 오히려 역행하는 음란물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을 거쳤으며 그리고 그 모두가 청소년에게는 유해하다는 법적 판단 내지는 사회적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수십만의 청소년들이 전술한 매체를 보고 읽었으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우리 사회의 반응과 대응방식은 오랜 세월 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그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남녀 불평등 조장이나 현실왜곡 등의 부작용을 따지지 않으며 교묘한 자본주의의 상업적 전략에 휘말려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

1) 오양, 백양의 비디오는 인터넷의 위력이 발휘되고 CD로 제작되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을 포함하여 수십만의 사람이 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서갑숙 자서전은 발간되자마자 4만권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며, 거짓말은 제 4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최고 화제작이었다.

킨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기에는 반드시 사법적 개입이나 공적인 검열 등이 뒤따른다. 보수적 입장의 대변자이며 가부장적인 관행의 최후의 보루인 공·사적 기관들이 앞장서 전통적 가치관 운운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시청과 관람 및 소지를 금지하는 조치들이 내려지는데 이것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이후 즉 유해매체라는 표식을 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금지시킨 이후에 오히려 청소년의 유해매체의 접근이 늘어났다는 보고서(이기숙·김수연, 1999)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가부장적 폐습과 기성남성 중심의 성문화는 봉건주의 시대나 폐쇄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지 몰라도 사회가 개방되고 자율성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민주적인 새로운 관행과 성(gender)차별 없고 연령으로 인한 부당한 억압이 없는 성(sexuality)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이 요구된다. 특히 새 천년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역사가 보여주듯이 인류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문화 혹은 가치가 그 변화를 선도할 것은 명백하다.

주지하듯이 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세대는 청소년이다. 그들의 몸과 감정은 성과 맞닿아 있을 정도로 예민하며 성과 관련된 정보에의 접촉에 대한 의지도 기술도 그들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형성하는 성정체감은 그들의 자아정체감의 근간을 이루고 그들의 평생의 삶의 근간이 되는 인생관과 세계관의 형성에 농축되어 작용할 개인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장차 우리사회가 자율성이 신장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이 중시되며, 남·여 그리고 연령의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사회의 전 유기체가 함께 참여하고 상호 존중하는 평등한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청소년 성행동에 대하여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청소년 성행동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혹은 관점이 존재하며, 특히 양극단적인 관점의 강조는 우리 청소년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전통적 가치관이라는 미명아래 청소년의 순결을 강조하는 강력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신입생에게 결혼 전까지는 순결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순결반지를 증정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대학도 있다. 이러한 순결의 강조는 성가치관의 과거에로의 회귀로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남·여의 이중적인 순결가치관의 왜곡이 우려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10대도 섹스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누어주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청소년의 성에 대하여 상당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의 행사도 벌어진다(한겨레21, 2000). 이도 일정한 기준의 제시나 한계에 관한 것이 결여되어 있어 자칫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개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아동복지학회에서 '아동과 성문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 관점의 발표를 한 바 있다(한국아동복지학회, 1988). 그러나 아직은 청소년의 성행동에 관하여 이해하고 수용되어야 할 점이 있다는 수준 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적 그리고 학문적 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관련 의식과 행동에 관한 현존의 비현실적이고 통제적인 성윤리관과 일부 지나친 성개방 풍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성문화 및 가치관의 정립을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행동의 관점과 기준을 살펴보고 청소년 성주체성이 확립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대해 제기되는 사회적 장벽의 본질과 대처방안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일컫는 청소년은 여러 가지 학문적 이유로 우리나라의 중·고생의 연령대를 말하고 있으나(홍봉선·남미애, 2001)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청소년의 중심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를 전제함을 미리 밝힌다.

## II. 청소년 성행동의 관점과 기준

### 1. 청소년 성행동 원인에 대한 관점

성은 sex, gender, sexuality라는 3가지 개념으로 대별된다. 그 중 'sex'는 흔히 생물학적 성이라 불리며 신체구조, 특히 성기의 생김새에 따른 남녀간의 성정체감을 지칭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남녀간의 성기 결합이나 성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gender'는 우리말로 '성별', '성차', '성역할'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구분, 혹은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부과된 일련의 특징 및 행동유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성'인 sex와 구분지어 '사회적 성'이라 이해된다.

‘sexuality’는 성적 욕망, 실천들, 정체성 등을 의미하며,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적인 느낌이나 관계들,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 타인이 우리를 정의하는 방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이나영, 1999). 따라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신체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며,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촉진시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sexuality를 의미한다. 그러나 sexuality는 생물학적 차원, 심리사회적 차원, 행동적 차원, 문화적 차원, 임상적 차원을 다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전용호, 1996)이기 때문에 각 차원의 내용을 전부 다루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을 벗어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중에서 행동적 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행동적 성은 인간의 성욕구와 충동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신체적·성적 접촉을 의미하며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행위 외에 자위행위 등을 포함한다.

청소년 성행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비행이나 임신 등의 문제와 연결해 행해진 것이 대부분이고 청소년 성행동의 원인이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성행동의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Smith(1997)는 생활주기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주기적 관점은 삶의 과정에서 연령과 관련된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 관점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성적 활동으로의 과도기와 관련된 중요한 단계이며 성적 탐구는 정상적인 생활주기 경험의 일부라는 것이다. 또한 각 시기에 필요한 과업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의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그 뒤의 발달에서도 잠재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초기 청소년기인 11세에서 15세 사이는 성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만 실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다수의 문화와 가치, 기존문화의 장벽과 편견 등에 의해 부차적인 발달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발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중첩되고 관련된 체계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과정에 근거한다. 이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행동은 그들이 속해 있는 생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근린지역,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거시적 환경과 청소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인접한 환경인 가족, 학교와 개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성행동, 성태도, 신념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아래

청소년의 성행동을 예언하는 것으로는 친근한 관계모델(Close Relationships Model)과 Bingham 등 모델이 있다. 친근한 관계모델은 두 사람간의 상호작용에 개인적 요인(쌍방의 특성), 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사회적, 신체적)이 작용한다고 본다. Bingham 등 모델에서는 청소년의 성행동을 예언하는 것으로서 거시적 요인(사회경제적과 사회상황)과 미시적 요인(개인적 가치와 개인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Zimmerman & Sprecher, 1995).

그리고 김기환(1999)은 청소년 성행위의 원인을 크게 신체·심리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심리적 관점은 청소년기 성행위의 원인을 신체적 변화와 이에 따른 심리적 갈등에서 찾는 관점이다.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를 통하여 신체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신체적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적 욕구와 관심은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성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성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인이나 동료학생의 비행적인 성행위를 모방하거나 정반대로 억압하고 금기시함으로써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신체·심리적 변화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성행위를 설명하는 관점에서는 청소년기의 성적 관심과 충동을 자연적인 발달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성적 욕구를 건전하고 적절하게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청소년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이며 이러한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할 때 청소년은 성적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체적으로 조숙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왕성한 성적 욕구는 가지지만 음성적이고 은폐적인 방법 이외는 자신들의 성욕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폭력, 매춘, 강간 등의 비행적 성행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문화적 관점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성행위가 청소년의 신체·심리적 변화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신체적 발달에 의하여 나타나는 성적 충동과 성적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회·문화적인 가치와 성윤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의 사회화 과정에 따라 성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부장적인 가치관, 남존여비의 성차별, 남아선호사상 등은 남성으로 하여금 독립적·공격적·이성적이어야 하며 여성은 의존적·순종적·감정적이어야 한다는 차별적인 성역할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성의 사회화과정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을 거쳐 개인의 섹슈리얼리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 청소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행위와 이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있

다고 본다. 즉,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들의 성행위가 전통적인 성윤리를 파괴하는 일부 비행적인 청소년의 일탈적 행위로만 해석할 수 없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와 관련되는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청소년의 성행동에는 신체, 생리적인 측면과 심리, 사회, 문화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행동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관점과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청소년 성주체성 확립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구성함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울러 청소년 성행동의 경우 단순히 인격이나 도덕성의 문제만으로 단순화하기 어렵고 특히 직접적인 성행위에서는 친구의 영향이나 성의식, 태도<sup>2)</sup>보다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애정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2. 청소년 성행동 기준

청소년 성행동과 관련된 기준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는 전무하나 30여년 전에 외국에서 제시된 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기준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행동을 이해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에서 소개하고 이어 연구자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Rubin(1965)은 혼전 성행위에 대한 문화적 가치체계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종교적, 도덕적 지도자들에 의해 주장된 전통적·억압적 금욕주의적 입장이다. 이 금욕주의 하에서는 일체의 혼전 성관계가 배제되며, 결혼상태에 있어서도 성행위는 생식 혹은 출산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둘째는 계몽적 금욕주의 입장이다. 지나친 방종 때문에 도덕이 약화되었다고 보고, 이를 강화시키려는 입장이다. 즉 혼전 성관계에 대한 교조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거부하고 혼전 성관계 문제에 대한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올바른 성규범을 정립하려는 입장이다. 셋째는 인본적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성도덕은 성행위의 방종이나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로 보는 입장이다. 즉 어떠한 절대적 성규범을 반대하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어 혼전 성관계는 개인의 선택에 있다고 본다. 넷째는 인본적 급진주의이다. 사회가 젊은이들의 성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혼전 성행위를 포함한 모든 성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도덕적인 차원에서 다를 문제가 아니라

2) 성행동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가진 여자청소년이 성경험을 쉽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성경험을 한 여자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한 태도가 관대해질 가능성도 있다(Billy et al, 1988 : 남미에, 2001).

고 본다. 다섯째는 유희적 도덕주의적 입장이다. 성행위는 쾌락적인 것이며, 인간은 성행위로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성행위는 고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섯째는 성적 무정부 상태의 입장이다. 순결, 정조, 단혼제 등을 배척하며, 폭력적인 방법을 제외한 모든 성적 금기나 통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입장이다.

또한 Reiss(1960)는 다양한 성의 가치체계를 근거로 하여 혼전 성행위에 관한 도덕적 기준을 절제(abstinence), 애정적 허용성(permissiveness with affection), 비애정적 허용성(permissiveness without affection), 그리고 이중적 기준(double-standards)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절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남녀간의 혼전 성관계는 잘못된 것이라는 도덕적 기준이다. 이러한 절제 기준은 문화적 이념형성으로서 많은 사회에서 공식적 성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기준은 서구사회에서 공식적인 성규범으로 지지되어 왔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지배적인 성규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둘째, 애정적 허용성은 사랑 혹은 강한 애정이 동반될 때의 혼전 성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다. 이러한 애정을 가진 허용성의 기준은 서구 사회의 자유주의적 경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혼전 성관계는 개인의 자유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기준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있다. 셋째, 비애정적 허용성은 어떤 신체적 충동이 있다면 애정의 정도에 관계없이 혼전 성관계는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비애정적 허용성의 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신체적이고, 유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즉, 남녀간의 애정을 배제한 경우에도 혼전 성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넷째, 이중적 기준은 혼전 성관계가 남성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이중적 기준이 남녀간에 성적 허용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으로 더 허용적일 것이다. 이 네가지 기준 중에서 특히 이중적 기준은 우리사회에서 널리 묵인되고 있는 기준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성행동의 기준에 있어 계몽적 금욕주의 입장, 절제와 이중적 기준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청소년 성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순결지상주의의 성 : 결혼한 상대방하고만 이루어지는 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청소년의 성은 전면 부정된다. 둘째, 결혼을 전제로 하는 성 : 성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 확보로 당장은 정신적 갈등을 회피할 수 있으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성을 결혼과 연결시킴으로써 성적 주체성이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사랑이 절대시 되는 성 : 순결은 중요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서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성행위만 가능하다는 입장. 넷째, 애정

이 기초가 되면서 상호간의 자기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성 : 상호 신뢰적인 애정을 느끼며 상호간의 자유의사결정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이루어지는 성. 다섯째, 자유주의적 입장의 성 : 성행위는 인간의 본능이며 성행위는 자유스럽게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성개방의 풍조를 따른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형태를 띄거나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성적 행위만이 존재하는 성 : 성행동에 관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상황과 여건이 되고 상대방이 싫지만 않으면 이루어지는 성. 일곱째, 강제화 되어지는 성 : 자신의 성적 충동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사를 불문하고 강제하는 성으로서 성폭행의 형태로 나타나는 성. 여덟째, 사이버 성행동(Maxwell, 1997) : 미래의 성으로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성행동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는 첫 번째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당장은 첫 번째의 입장을 취하는 수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입장을 취하는 수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섯 번째의 입장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본다. 여섯 번째의 입장도 일부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일곱 번째는 후술하겠지만 세계 주요국가와의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빈번하다.

이 중 청소년의 성행동에 관한 연구자의 견해는 네 번째의 입장을 견지하고자 한다. 이는 Rubin의 인본적 자유주의와 Reiss의 애정적 허용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청소년의 성주체성을 인정하더라도 세 번째의 입장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세 번째의 입장은 순결이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되어 있고 사랑의 정도나 깊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진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늠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된다. 때문에 현실적 선택의 기준이 보다 구체적인 네 번째의 입장이 청소년에게는 이해하기가 용이하고 결정의 기준이 명쾌하다고 생각된다.

### Ⅲ. 청소년 성주체성 확립의 사회적 맥락과 당위성

#### 1. 청소년 성주체성 확립의 사회적 맥락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the Independence of sexuality)은 ‘청소년이 사회적 관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한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애정적 성행동’의 관념적, 실천적 총체이다. 청소년 성주체성의 확립이 요구되는 사회환경적 배경은 그들의 성주체성을 부정하였던 그동안의 가치관과 환경들이 변화하였다는 사



실에서 연유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인간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청소년들의 인권과 자율성에 대한 관심의 증폭이라는 가치관의 변화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성의 개방과 관련한 세계적 풍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1) 청소년의 참여, 인권의식 및 자율성의 신장

자율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직접적 표출의 증가는 그들의 성주체성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얼마 전에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에 대한 학생들과 학교당국과의 토론회가 벌어졌을 때 그때 학생들의 주장은 단순히 머리를 어느정도까지 기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한다. 그들의 주장은 일관되게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 달라”이었다. 청소년들은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학생지도를 인권침해로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학생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교육법 개정에서 입시교육을 더욱 부채질하는 가능성이 있는 고교등급제와 자립형사립고 반대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개혁적이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주장하며 행동으로 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근래의 이-메일을 통한 머리각기 반대운동, 교복착용 반대 그리고 체벌이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교사가 학생에게 고발당하는 것은, 학생들이 드디어 교실안의 파쇼적 규율 대신 인간존엄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교사와의 인간적으로는 평등한 관계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박노자, 2001).

이러한 사례는 특별한 청소년 몇몇의 사례로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은 그들의 권리와 자율성의 확보에 진일보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현실을 겸허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는 수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멀지않아 보편적 현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기성세대는 하여야 한다. 그들은 사회적 혹은 전통적 가치라는 명목의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를 이제는 따르지 않는다. 즉 비합리적 관행이나 결정에 침묵 하지만은 않는다. 이제 그들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들을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해야 하며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1998년에 개정된 ‘청소년헌장’에서도 청소년들의 인권과 자율, 참여, 선택적 가치의 존중, 성숙한 사회인으로 인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청소년의 성주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고 사항으로 생각된다. 기성세대가 부여하는 ‘성’의 질서 혹은 질서의 강요에서 비록 청소년이라도 그들 개인의 자유, 책임을 강조하는 질서로 이동하여야 한다.

## 2) 청소년 성주체성의 세계화 추세

세계화의 시대에 외국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가치관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인스티튜터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15-19세까지의 청소년의 약 55%가 성교 경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01). 미국이 유럽지역에 비해 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사회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적인 성행동 비율은 유럽국가와 미국이 다를바 없지만 유럽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임 실천율이 높고 임신과 낙태율이 낮다(Rhode, 1994). 브라질은 첫 번째 성경험을 여자는 15살 남자는 14살이 가장 많으며 그들은 그들의 육체에 대한 결정권을 최대한 대담하게 누리고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분석이다(한겨레21, 2002). 이렇듯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는 시간에 따라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 성은 관계를 형성하고 난 뒤의 경험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의 자연스런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McCabe & Cummins, 1998).

지구촌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세계적 풍조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그 영향의 속도와 정도가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심하다. 주지하듯이 그것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과 그 사용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빨리 체득화 하는 것은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것은 인권, 다양성과 개인차의 존중, 남녀평등, 사생활보호, 성적 소수자들의 권익 등이다. 그 모두가 청소년의 성주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3) 성과 관련된 문학, 예술의 증가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의 성 혹은 성관련 정보와 성애물의 접근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도 청소년의 성주체성을 인정해야 하는 사회적 맥락과 관계가 있다. 인간의 몸을 주제로 하고 인간의 원초적 감정에 호소하는 문학, 예술적 행위의 증가와 사회적, 법적 수용 및 인정 범위의 증가 추세는 인간의 성과 관련된 고답적인 방식의 해석으로는 청소년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보다 진실하고 실제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의 해석이 필수적이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몸의 변화와 감정의 동요에 대한 인정과 건강한 방향으로의 표출을 수용하여야 한다.

얼마 전에 한 현직교사가 자신과 부인의 누드를 인터넷에 올려놓아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사회적 비난과 언제나처럼 검찰의 법적 판단도 뒤따르고 당사자인 선생님

의 징계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른 관점도 존재한다. 즉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교육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일단은 충격적이지만 우리의 정신은 충격을 통해서 고양되고 세계는 확장되는 것이다. 교사부부의 벌거벗은 사진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으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벌써 학생들은 이 사건과 그 사진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만큼 성장했으리라 본다. 아마도 그들은 사람의 벌거벗은 몸에 대해 음란한 생각을 하는 어른들로 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김선주, 2001).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과 정신을 맑게 하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전하면서 올바른 성장의 좋은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좀 더 개방되어야 한다.

#### 4) 인터넷의 발전과 디지털시대의 도래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청소년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디지털은 한마디로 ‘감성의 융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시대에는 이성이나 합리성, 정확성보다는 감각, 감성, 느낌과 같은 것들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된다. 이것 역시 기성세대보다는 청소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청소년의 삶의 특성과 시대적 조류인 지식정보화 혹은 디지털은 선·후 구별없이 상호 강력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현대는 물론 미래의 사회를 주도하는 문화로서 기능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아진다.

전술하였듯이 우리의 청소년들은 익숙한 컴퓨터적 마인드와 기술을 가지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잘 적응하면서 또한 그들의 몸과 정서에서 강렬하게 요구하는 성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한다. 성에 대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화상과 불건전한 정보에 과다노출 됨으로써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성적 왜곡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몇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성애물 관련 인터넷 접속을 방지하는 시스템과 인터넷 등급제 등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성인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급제도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 이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문가 및 청소년들의 생각이라고 알고 있다.

‘청소년의 외설물 접근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82%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다(한겨레, 2000)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성인사

이트 접속이 세계1위(동아일보, 2001)라는 것은 성은 은밀한 행위이고 특히 청소년에게는 주로 억압과 통제 그리고 회피로서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보수적인 가치관을 유지해 오던 것이 이제는 그 기초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 호기심이나 성 접촉을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며 보다 현실적이면서 건강한 성 가치관의 형성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5)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 의식 및 행동의 개방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에 비하면 아직 그 정도가 덜하고 지역과 조사 시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성 개방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서울YMCA청소년성교육상담실에서 발표한 남자 청소년들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자 고교생의 17.9%가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34.1%, 남학생의 37.9%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49.4%는 ‘청소년의 성관계를 이해한다’고 답변했고, ‘조금 이해할 수 없다’가 31.0%, ‘단호하게 이해할 수 없다’가 17.2%였다. 최소한 반수 가까운 10대들 사이에서는 비껴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성문제는 일부 일탈행위나 학업능력, 지역특징이 아이들의 성행동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YMCA, 2000).

또한 ‘주간 당진시대’는 최근 당진군내 5개 고등학교 고교생(2학년) : (남 95명, 여 10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문화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혼전 성관계에 대해 41.5%(39명), 여학생 32.4%(34명)가 ‘결혼 전에도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남학생 20.2% 여학생 9.5%는 ‘본인이 서로 원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해 충남지역 고교생들 상당수가 혼전 성관계에 개방적인 시각을 보였다. 본인의 성관계 경험에 대해서는 남학생 16.1%(15명) 여학생 13.7%(14)로 나타났다 (주간 당진시대, 2001).

부산지역 중·고생 134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에서도 여성의 혼전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가 전체 응답자의 51%이고 여학생(53.9%), 남학생(46.3%)였으며 청소년도 성을 느끼고 즐길 권리가 있다라는 질문에 아니다(남자21.2%, 여자33.8%)로 나타나 남자 78.8%, 여자 66.2%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남자의 31.8%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것에 비해 여자는 매우 그렇다에 9.0%로써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양미연·김은진, 2001). 성의 적극적 표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남성에게 비해 여성에게 보다 집중되는 것에 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제 10대들의 성담론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 기성세대들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하며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인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수십만년의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지난 수십년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10대에 성행위를 해 왔고, 10대에 자녀생산을 해 왔다. 지금도 일부 원시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들은 10대 중반에 이미 성인식을 치루고 당당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문명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를 금지 내지는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학자나 유전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10대에 성행위를 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인간들은 자연적인 인간성에 역행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 수십만 년 동안 가능했던 것을 왜 과거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진 현재, 금지 내지는 제한하는 것일까? 성 그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성 그 자체는 범죄도 비행도 아닌, 인간 아니 생물의 존재조건이 된다(이경재, 2001).

그러나 사회가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더 허용적이고 자유를 줄수록 청소년의 성주체성을 근간으로 하는 건강한 성가치관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른 사회적 제문제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다.

## 2. 청소년 성주체성의 당위성

지금까지 현대사회의 불평등 구조 속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는 일방적인 규제와 복종의 관계였다. 즉, 청소년의 미성숙성·미성장성은 청소년기의 독특한 실체, 문화, 가치관, 생활방식, 사고방식 등 존재론적 당위성을 기성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체제구속적 속성, 기득권, 물리적 우월성 등의 요인으로 청소년을 항상 피제약적·피규정적 위치에 서게 하였고 자생적 청소년 문화를 정립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기성사회의 대응 및 조치의 정당화 논리가 되어 왔다(최현, 1992).

청소년의 성에 대한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청소년을 무성의 존재로 인식하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고 다수의 청소년들이 성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꼽으며 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들을 '성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문화와 삶이 있는 '청소년'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삶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삶,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 기성세대와 사회는 단지 그런 인정 속에 뒤따르는 책임에 대해 일리 주어야 하는 것이다(엄기호, 1998).

즉, 청소년들에게 있어서의 성은 더 이상 출산이나 결혼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며 인간관계를 배워 가는 방식인 것이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들 세대의 관계맺기가 건강한 형태로 나아가게 도울 준비를 해야 한다(조혜정, 1996). 따라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건강한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주장의 당위성을 5가지 관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생물·생리학적 관점

청소년의 성주체성 인정의 당위성은 우선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청소년의 성주체성은 그들의 성적능력이 생물학적 관점에서 발생하는 시기 즉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이미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모든 체계가 청소년의 성적능력의 유·무와는 별개로 통제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청소년은 신체적인 발달면에서 이미 성적으로 완숙한 상태이고 그에 따라 성적인 호기심과 이성애에 대한 관심이 왕성한 시기이다. 그들은 이미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상적인 발달단계의 최종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인간 발달 과정상에서 가장 많은 성적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다. 청소년의 이러한 실체에 대하여 많은 성과학자들 역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들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는 생물학적 지식을 동원하기도 하고 윤리적 이유, 문화적이거나 위생상의 이유를 들기도 하면서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정당한 성적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이지연, 1994). 이처럼 청소년기의 성적 성숙이 그들의 문제행동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데는 그들에 대한 성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그들의 의지만으로는 억제하기 어려운 성적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출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크게 작용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성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 남녀에 다소의 성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적욕구는 남녀 구분없이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것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강제적인 통제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건전한 방향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고 생산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사회문제 예방의 관점

청소년의 심적 갈등과 엉뚱한 행동은 성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함중환, 1992) 이러한 성적 발달을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사회 구조하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청소년 성범죄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즉, 세계 주요 1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성인범죄 대비 청소년범죄의 전체 발생률은 조사 대상국 중에서 9위로 매우 낮은 편인데, 그 중에서 강력 범죄만을 비교했을 때는 2위이고, 성범죄는 불행하게도 2위와 상당한 격차를 두고 1위이다(이종원의, 1991)<sup>3)</sup>.

그리고 모든 성범죄의 절반 가까이는 10대에 처음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에 있어 희생자의 연령, 강제의 정도, 그 외 성범죄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연속성이 있으므로(Caputo & Frick, 1999) 청소년기의 왜곡된 성정체감은 성인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정체감 형성은 이런 면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의 청소년들은 직접적인 성경험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향락적이고 상품화된 성을 이용하는 경우도 높아 청소년 스스로 성의 왜곡으로 인한 비행행동의 잠복성과 사회적 일탈을 경험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팽배해 있는 전근대적인 성윤리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의 성주체성을 기초로 하는 건전하면서도 현실적인 청소년의 성윤리관의 확립은 음성적이고 일탈적인 성행위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성정체감 관점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왕성한 성적 욕구와 관심은 자연스런 발달과정이며 그들의 성행위는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심리생리적 성행위나 비행적인 행위만은 아니고 자신의 성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데에 필요한 심리 애정적 욕구의 표현인 면이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행위란 타인을 강요하거나 착취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심리아정적 성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Moore & Rosenthal, 1993).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건강한 행위로 표현할 경우 청소년의 성행위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습득하게 하고, 자신이 사랑받고

3) 애초에 소년비행의 국제비교는 5년마다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후속작업이 못이루어지 있으며 청소년연구원의 이종원박사와의 통화에서 10년 전과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다르니 않다는 견해를 확인하였다.

성적 매력이 있는 존재라는 확신으로 인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기의 성관계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또래집단, 부모, 이성 친구를 포함해 여러 가지 관계를 변화시킨다(Upchurch et al., 1998). 또한 훌륭한 성격은 서로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다(Chilman, 1990). 청소년의 성행위는 전통적인 성윤리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비행적이거나 일탈적인 행위로만 해석할 수 없으며, 스펙트럼상의 어떠한 성행위도 하지 않는 청소년이 건전하고 모범적인 청소년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도리어 건전한 성행위를 습득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심리발달적 장애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세대의 가치관과 발달 유형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애착, 자아개념, 성취동기 등의 발달심리적 특성은 아동기와 대학생 때는 발달하나 청소년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발달 유형을 보인다고 한다(김기환, 1999). 이러한 원인은 입시, 사회적 통제, 경쟁과 학업 등으로 청소년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상적인 심리발달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억압적인 통제와 입시에서 자유로운 청소년들은 오히려 일반청소년들에 비하여 정상적인 심리 발달을 보여주며, 친구와의 애착, 자신감, 대인관계에서의 통제 등에서 상당히 높은 긍정적인 발달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통적인 성윤리에 위배되는 성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이들의 비정상적인 심리 발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체 발달상 나타나는 성적 욕구를 억압하여 심한 갈등과 고민에 쌓여 있는 청소년들이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로 낙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많은 청소년들은 더 이상 성관계를 '옳은지 그른지'의 차원에서 말하지 않는다. 규범적인 언어는 한계에 달했다. 성은 단순한 도덕의 언어가 아니라 주체적 행위자의 시선에서 '좋고 싫고'의 경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일상적 현실이 되었다(조혜정, 1996).

#### 4) 자기결정권의 관점

인간은 자기의지(self-will)가 있으며 자신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동시에 누구나 자기결정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천부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동시에 욕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청소년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Salzberger(1979)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면에서 무능력하여 자기결정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가 자기결정의 권리를 잃은 것은 아니고 다만 자기결정을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경우 미성숙하고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종종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별 문제없이 제한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 사회에서 거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그들을 무능력자로 전제하는 사회적 정책과 제도들은 청소년의 “육성” 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상충될 수 있다. 즉 모든 청소년들을 일률적으로 심리적인 미성숙자이고 판단무능력자라고 간주하면 일부 성숙한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므로써 그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자발적으로 계발하여 새로운 사회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율성과 자기결정능력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심리적 성숙과 판단력의 발달을 촉진하기도 한다 (Tremper & Kelly, 1987).

인간 행동의 자기결정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의 자기결정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있는 가치로서 교육현장에서 그리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그 중요성이 확인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선택된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것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성행동 결정과 관련하여서도 결정된 결과 이상으로 그러한 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존중은 청소년의 성장에 보다 유용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청소년에게 보다 강도 높게 요구되는 덕목 중의 하나는 독립적인 자기결정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주체성 확립은 성행동의 자기결정의 권리를 인식시켜주고 신장시켜줄 것이며 그러한 성 자기결정권의 신장은 그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체적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보충수업의 사실상의 부활과 같은 전인적 교육에 역행하는 조치의 실시가 학교와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의 소산이라면 이를 저지하고 이를 개선할 주체는 실제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들의 현재적 삶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에 대한 당사자 결정에 대한 중요성을 그들이 인식하고 실천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의 성주체성 확립은 그들의 삶을 지키고 질적 강화를 도모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IV. 청소년 성주체성 확립의 사회적 장벽, 그 본질과 대처방안

성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인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기성세대의 몇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과연 청소년에게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 인정이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을 붕괴시켜 급격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는가. 셋째, 청소년의 성행동 증가로 현재보다 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등이다. 이들은 청소년의 성주체성 확립을 저해하는 사회적 장벽으로 간주됨으로 이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아래에서 밝히고자 한다.

##### 1. 청소년의 성행동 결정능력 및 책임성의 유·무에 관련된 문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은 미국의 1970년대부터 여성의 권리와 낙태의 합법화 여부 문제가 거론되면서부터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첨예한 학문적 대립과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들 연구는 크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입장과 지지하는 입장으로 양분될 수 있다. 박광배(2000)는 미국에서 행해진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부정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① 본능적 충동의 노예이고, ② 미개한 인간의 형태에 속하며, ③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외면, 무시 등을 두려워하여 쉽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고, ④ 판단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과 불행에 자신이 처해질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며, ⑤ 행위가 초래하는 비용보다는 이익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위험부담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⑥ 행동의 즉각적, 단기적 결과에만 주목하고 궁극적, 장기적 결과를 도외시하며, ⑦ 판단과 결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의 사용”에서 미숙함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는 청소년들이 가진 결함이라고 지적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성인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것들인데, 성인과 비교하여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더 심하게 혹은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설혹 이 연구들에 의해 지적된 문제들에서 성인이 청소년보다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독특하게 가진 다른 결함 (예를 들면, 권위의식, 체면의식, 정치성, 고정관념, 가치관 등) 들에 의하여 성인의 최종 판단이 청소년의 그것과 유사한 정도로 비합

리적이고 부정확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인정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십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들은 ① 사회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② 대인관계가 성인의 대인관계 양상과 동일하고, ③ 성인 수준의 자발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신감에 기초한 자기결정의지를 가지며, ④ 추상적인 것을 다루고 가설을 검증하는 인지기능과 초인지적 이해능력이 있으며, ⑤ 창의력을 발휘하여 상황을 타개하는 문제해결능력과 주어진 정보를 효율적, 논리적으로 취합하여 “옳은 해법”을 찾아내는 문제해결능력이 있고, ⑥ 의견충돌이나 이해의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 양방이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모색하고 합의하는 능력이 있으며, ⑦ 행위의 잠재적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고려하여 행위여부를 결정하는 능력이 있고, ⑧ 행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들이 믿을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⑨ 한번 내린 결정사항을 차후에 성실히 준수하고, 그 결정의 세부사항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다.

박광배(2000)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자료들이 아동/청소년의 모든 성행위가 의미있는 동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아동/청소년은 성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고 의미있는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없어서 타인에 의해 유도되고 이용되고 충동적, 일회적, 무비판적, 무계획적인 성행동을 할 것이라는 일반화된 견해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과 그것이 없는 아동/청소년이 학교결석 등의 비행문제에서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통계는 성경험 자체가 아동/청소년과 어린 성인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일차적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특히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청소년에게 있다고 입증되지만 이것은 십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들의 경우이고<sup>4)</sup> 십대 초반의 청소년들은 확실히 성인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점이다.

둘째, 청소년 성문제에 있어 사회지지의 중요성이다. 성병이나 임신의 가능성을 생각

4) 특히 미국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과학재단 (National Academy of Sciences)들은 이미 낙태결정에서 청소년들이 성인에 준하는 자기결정능력이 있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천명하였다. 이는 낙태결정에서 청소년들이 성인에 준하는 자기결정능력을 가졌다면 성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자기결정능력 또한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인 추론일 것으로 사료된다(박광배, 2000).

하지 않고 준비 없이 성행위를 하는 십대 후반의 청소년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무모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회와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sup>5)</sup>는 것이다.

셋째, 첫 번째 성경험을 일찍 할수록 비행이나 마약, 임신 등의 문제들과 많이 연루되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금에 청소년 성보호법의 취지에 관한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5세 가출소년에게 잠자리와 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에게 무죄를 선언한 판사는 성보호법의 취지는 청소년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취지아래 관련성인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청소년단체 관련자들은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며 그들의 무죄 선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청소년 성적 결정능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는 전술한 선행연구의 주장처럼 청소년의 성적 결정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나 형사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인 점만을 감안 순수 법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술적 선행연구에서 많은 부분 인정되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통제되고 억압받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미약해져 있는 부분을 도외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청소년단체의 생각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대한 학문적 견해를 간과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국 인간발달단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자기결정 및 책임능력은 성인과 큰 차이 없이 발달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자기결정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회적 관행과 압력이 만연한 환경으로 인한 학습과 경험의 부재가 현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약화시킨 주원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문제는 나름대로 발달되어 있는 청소년의 자기결정 및 책임능력을 성 자기결정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은 교

5) 특히 Ambuel & Rappaport (1992)의 연구에서는 낙태결정에서 낙태의 단기적 결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 결과까지 고려하는 정도가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서는 연령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의 성격적, 상황적 우유부단성 (decision conflict), 임신에 대하여 청소년이 받고 조연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지자 (social support)"의 유무, 그리고 낙태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십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의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하고 실질적 도움 (물리적 배려와 지식의 공급)을 줄 수 있는 주변인들과 사회환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박광배, 2000).

육현장에서 일관되게 청소년 행동결정의 주요 덕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2. 전통적 가치관과의 상충

청소년에게 성적 주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해 가정 및 사회생활의 혼란과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는 '성위기론'적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성적인 개방화와 자유화는, '신세대'로 불리는 청년집단의 하위문화에서 눈에 띄는 몇몇 자극적 현상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다. 특히 여성들의 변화는 그 폭이 작은 것이라 하여도 전통적인 가치관의 가장 민감한 지점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질적 변화로 침소봉대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오히려 성위기론의 정치적 함의이다.

서구사회의 경우 성위기론의 주된 공격 대상은 동성애자들이다. 천형으로 여겨지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동성애 집단과 잘못 연결되면서 성위기에 대한 공포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성위기론은 언제나 가족에 대한 강조와 보수적 가치관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신우익(New Right)에 실익을 안겨다 주는 명실상부한 성정치의 지형을 형성하였다.

우리 사회의 경우 아직 성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족위기론'은 성위기론까지 잠재적으로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내부의 갈등에서 빚어진 범죄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패륜'을 질타하고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진다. 건전한 인성의 준거점을 가족에서 찾는다는 것은, 곧 성 역시 가족의 영역에서 '정상적인 가족'을 기준으로 교육받고 또 그러한 가족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길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전통적인 '수신제가'의 가족중심주의는 자유주의적인 사생활 보호 원칙과 결합하면서 오히려 사적인 영역에 은폐되어 있는 비인간적인 관행들을 옹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공공 영역의 진입이 봉쇄되어 왔던 집단들 - 여성, 청소년, 어린이들 -을 계속적으로 그 위치에 묶어 두겠다는 발상과 연결된다(오생근·윤혜준, 1998). 사회복지계나 여성학계에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한 이러한 폐습은 그동안 전통적 가치관으로 가포장 되어 많은 여성과 청소년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시켜왔다는 것이 연구자의 기본적 시각이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청소년의 성행동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한 Van Roosmalen(2000)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힘과 통제의 문제는 여자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전히 있었으며 특히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을 채택하는데 있어 상당한 문화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즉 여자청소년의

경우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일 때 친구나 이성친구로부터 소외되는 위험이 높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버릴 때 비로소 동료친구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자청소년의 경우 동료친구로부터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선택하고 진정한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성적 욕망을 표현하면 마치 이들을 매춘부나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사람쯤으로 여기게 된다(Durham, 1998).

이러한 이중 성윤리 그리고 그로 인한 강간 신화<sup>6)</sup> 등의 사회적 환경이 성폭력 등의 각종 청소년 성문제를 야기시키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젊은이들의 애정관이나 포로노물, 나아가 매매춘, 성폭력 등의 불건전한 성문화 확산에 직·간접의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는 극단적 억압 금지 문화와 방종적 문화가 동시에 존재한다. 문제는 기존사회가 한편에서는 그런 욕망을 한껏 부추기면서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교재의 장을 열어 주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 성적 욕망을 무책임하게 부추기는 대중매체와, 그러한 욕망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려는 도덕주의자들과, 성을 포괄적인 관계의 문제로 풀어 내지 못하고 한정된 전문적 지식으로 풀어 갈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주의자 내지 아이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이해하기보다 전문지식을 더 신뢰하는 권위주의적 상담교사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조혜정, 1996).

청소년 성주체성 인정은 이러한 만연되어 있는 성과 관련된 사회적 제문제의 근원인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벽을 동시에 허물고 남녀노소가 평등한 관계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지엄한 가치의 증대를 촉진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전근대적인 순결만을 강조하지 않는 건강한 성주체성 확립은 남녀노소의 상호존중 실천의 첫걸음이자 그 결정판이다. 따라서 청소년 성주체성의 확립은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가 아니고 새시대에 요구되는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성문화의 도래인 동시에 모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6) 바트와 오브라이언(1985)은 강간을 지지하고 따라서 타파되어야 할 강간신화들로서 다음을 든다.

- 1) 여성을 의사에 반해 강간할 수는 없다. 2) 움직이는 바늘에 실을 뿔 수 없다. 3) 매춘을 합법화하면 강간을 없앨 수 있다. 4) 좋은 여자는 강간당하지 않는다. 5) 여성은 강간을 즐긴다.

코스 등(Koss & Leonard, 1984)에 의하면 다음 신념들이 강간지지적이다.

- 1) 강간은 심각한 범죄가 아니다. 2) 강간예방은 여성책임이다. 3) 남자가 성적 상호작용에서 강제적 힘을 쓰도록 여성이 부추기고 원한다. 4) 남자 여자 사이의 관계는 대립적이고 조작가능하다. 5) 남자의 역할은 내키지 않아 하는 여성에게 성관계를 가지도록 확신시키는 것이다. 6) 약간의 힘은 성을 얻기 위한 합법적 전략이다. 7) 여성은 남자가 성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힘의 전략이 무례하다고 보지 않는다.

### 3. 사회적 제문제 발생의 우려

청소년의 성주체성을 인정하면 성문화가 더욱 문란하여 성행위는 물론 임신이나 임신 중절수술, 미혼모 나아가 성폭행 등의 각종 사회문제가 촉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애정과 자기결정의 상호 존중에 근거한 청소년의 성행동이 존중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한 실증적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직접적인 성행동 이유에는 사랑이나 합의에 의한 자발적인 성행위와 비슷한 또래의 친밀감과 애정을 가지는 이성교제 대상자와 지속적이며 안정된 관계를 행하는 부류도 있지만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강요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심리·생리적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성행위가 많으며 그중에는 항락적이고 상품화된 성을 이용하는 부류도 있다(한국성문화연구소, 1996, 1997; 강영삼등, 1997). 그러나 성에 대한 청소년의 개방적인 태도나 빈번한 성행위와는 달리 성행위에 따른 실제적인 문제, 즉 십대 임신, 낙태, 출산, 성병, 성폭력문제, 미혼모문제 등의 문제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대개 성과 관련된 고민을 친구와 상의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으며, 성에 관련된 지식을 주로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해 얻고 있어 성충동의 남녀 차이, 피임법, AIDS에 관한 지식 등 구체적인 성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개발원, 1995). 대한가족계획협회 산하의 한국성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고생 가운데 52.2%가 피임하였다고 한 반면, 여고생의 경우에는 20.4%에 그치고 있어 임신의 부담을 갖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이 오히려 피임 실천에 적극적이지 않은 현상을 보여주었다(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청소년의 임신율은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가 거의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1996년의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출산은 전체 출산의 1.4% 정도라고 한다. 대한가족계획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임신동기는 62%가 무계획이나 무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상대방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44%, 우연히 만난 경우가 29.4%에 이르고 현재 헤어졌거나 관계가 끊어진 경우가 89.2%에 달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임신한 십대의 64.5%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인공임신중절자 중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95). 또한 매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150만 건의 낙태수술 중 1/3이 십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미혼모 자녀의 대부분이 입양기관에 위탁되거나 유기된다(김기환, 1999)

청소년 성행동과 관련되어 발생되어 지는 사회적 제문제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발생되고 있었고 이의 상습을 예측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전술한 두가지 사회적 우려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성주체성 인정은 일반인의 우려와는 달리 이러한 만연되어 있는 청소년 성행동의 후유증을 예방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실증적 조사에서도 정서적인 안정과 친밀성은 현재 데이트와 성경험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았다(McCabe & Cummins, 1998). 또한 청소년의 성행동에 있어 의사소통이 분명하고 성적 행동에 대한 규칙을 분명히 할수록 강제에 의한 성행동이 줄고 성행동에 대한 수용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간에 원치 않는 성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간의 성적 욕구가 서로 충족되기 위해 타협할 능력과 성적 압력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고 청소년간의 의사소통기술을 가르쳐야 한다(Rosenthal, 1997)

청소년의 건강한 성행위란 타인을 강요하거나 착취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심리에정적 성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Moore & Rosenthal, 1993)

청소년의 성이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성주체성의 확립은 강요나 강제로 이루어지는 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임신중절수술, 불법적인 의료행위 등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도 성적 주체임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을 오로지 공부하는 학생으로 간주하고 무성(sexless)으로 보는 기존의 사회적 의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래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성적 행위의 주체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인과 같은 성숙한 발달단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문에서 줄곧 언급했듯이 도덕적, 문화적, 사회문제적 이유를 들면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억제해왔다. 보호와 배제라는 논리로 인해 무시되거나 가려져 왜곡되게 인식되어 왔던 성적 존재로서의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다음으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성 윤리가 확립되어야 한다. 성적 존재로서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역사적, 시대적 상황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여성의 혼전 순결을 강조하고 남녀의 성행위에 대해 성 차별적인 인식을 갖던 전통적인 관점으로서 는 신체적 조숙과 개방적인 성 의식 등을 경험하는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잣대를 제시하지 못한다.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가족 및 이웃에게 알 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을 지속할 수 있는 성문화는 더 이상 존속되 어서는 안된다. 또한 성적 욕망을 부추기는 대중매체와 그러한 욕망의 존재를 애써 외 면하려는 도덕강조 일변도의 편협한 시각들은 청소년에게 성을 부정적이며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특히 이중적이며 성 차별적인 성인남성중심의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은 청 소년에게 성행위가 애정과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며 인권존중과 평등의 가치에서 서로의 합의가 바탕이 된 행위가 아닌 착취와 강제, 혹은 단순한 성적 욕구의 충족이나 해소라 는 왜곡된 성의식을 형성시켜 그들의 건강한 성정체감 형성을 방해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사회의 일정한 수준의 개방화가 요구된다. 현재의 세계화적 흐름은 개방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큰 방향에서는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내용면에서는 수구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이 아직도 강하 다. 예를 들면 사후 피임약이면서 윤리적 갈등의 논쟁도 최소화되어 있는 Norlevo 같은 약은 큰 제약없이 청소년들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교육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임 혹 은 피임기구의 사용법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미래지향적 이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인간적 가치를 높이는 건강한 성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선행 되어져야 한다. 그것은 이미 설명한대로 청소년의 성 주체성의 확립이다.

김만두, 한혜경(2001)은 사회복지의 개념들이 최근들어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변화방향에 다음의 두가지를 포함시켰다. 하나는 국민의 개성적이고 다양화된 삶의 가치에 의해서 자유롭고 선택적인 삶의 방식이 실현될 수 있는 복지체계의 재편성을 필 요로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생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등과 같은 새로운 방 향을 추구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복지시스템을 확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라 고 하였다. 사회복지의 모든 현장은 이러한 방향의 실천들을 청소년에게 적용시켜야 하 며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 해서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청소년 성주체성 확립과 관련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필 요할 것으로 본다.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 참고문헌

- 강영삼·이기종·조원호. 1997.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연구”, *교육논총*, 국민대교육연구소, pp211-212.
- 김기환. 1999.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한 고찰”,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회.
- 김만두·한혜경. 2001.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p33.
- 김선주. 2001. “몸매 만들기에 맞선 누드”, *한겨레신문* 6월11일.
- 대한가족계획협회. 1995. *《인공유산 실태에 관한 조사》*.
- 남미애. 2001. “청소년의 매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청소년학회.
- 박광배. 2000. “아동·청소년의 성적행위 결정능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p16.
- 양미연·김은진. 200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의식 및 태도 분석”, *《청소년 성매매 원인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부산성폭력상담소, pp20-23.
- 엄기호. 1998. “포르노 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 섹슈얼리티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04-105.
- 오성근·윤해준 공편. 1998. *《성과 사회》*, 나남출판, pp72-73.
- 이경재. 2001. “무엇이 진정한 청소년보호인가?”,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제66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0.
- 이기숙·김수연. 1999.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인지수준과 비행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청소년학회, p62.
- 이나영. 1999. *《포르노 섹슈얼리티 그리고 페미니즘》*, 서원, p14.
- 이상문. 1995. “청소년의 성적 허용성(sexual permissiveness)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의. 1991. *《소년비행의 국제비교》*, 한국청소년개발원, pp130-131.
- 이지연. 1994. “십대의 성을 찾아서”, *《문화연구: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현실문화연구, p54.
- 전용호. 1996. *《정신지체아와 성》*, 파란나라, p94.
- 조혜정. 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pp233-234.
- 최 현. 1992. “한국 청소년의 연령별 불평등과 과제”,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한국청소년연구원, p31.
- 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여고생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청소년 이성교제의 실태에 관한 연구》*, p89.
- 함종한. 1992. *《청소년학 원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39.
- 홍봉선·남미애. 2001. *《청소년복지론》*, p20, p251.
- 동아일보. 2001.4.3.
- 한겨레신문. 2000.11.7, 2001.1.25.
- 한겨레21. 2000.12.6, 2002.3.6.

- Billy, J. O. G., Landale, N. S., Grady, W. R., & Zimmerle, D. M. (1988). Effects of sexual activity on adolescent soci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 190-212.
- Cummins. 1998.
- Caputo Alicia A, Frick, Paul J(1999), "Family Violence and Juvenile Sex Offending", *Criminal Justice & Behavior* Vol26, p239.
- Chilman, Catherine S. 1990. "Promoting healthy adolescent sexuality." *Family Relations* Vol. 39. 123-132.
- Durham, Meenakshi, Gigi. 1998. "Dilemmas of desire : representations of adolescent sexuality in two teen magazines", *Youth & Society*, Vol29, p374.
- McCabe Marita P, Cummins Robert A. 1998. "Sexuality and quality of life among young people", *Adolescence*, Vol33, p770.
- Maxwell Kenneth. 1997. "Sex in the future : virtuous and virtual?", *The Futurist* Vol31, p29.
- Moore, Rosenthal. 1993." Sexuality in Adolescence", Routledge. 김기환. 1999. p206에서 재 인용.
- Tremper, C. R., Kelly, M. P. 1987. "The mental health rationale for policies fostering minors' aut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p111-127.
- Reiss Ira L. 1960. "Premartial Sexual Standards in America". 이상문. 1995. p10-11에서 재 인용.
- Rhode, Deborah L. 1994. "Adolescent pregnancy and public polc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8, pp635-670.
- Rosenthal, Doreen A. 1997. "Understanding Sexual Coercion Among Young Adolescent s : Communicative Clarity, Pressure and Acceptanc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26 p481.
- Rubin. 1965. "Transition in Sex Values-Implication for the Educ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7. 이상문. 1995. pp9-10에서 재인용.
- Salzberger, Paul. 1979. "Case Work and a cl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Social Work* Vol. 24. 양옥경외. 1993. 《사회복지 실천과 윤리》, 한울아카데미, p52에서 재인용.
- Smith, Carolyn A. 1997.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sexual activity among urban adolescents", *Social work*. Vol. 42. pp334-347.
- Upchurch Dawn M, Levy-Storms Lene, Sucoff Clea A, Aneshensl Carol S. 1998. "Gender and ethnic differences in the timing of first sexual intercourse",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p121.
- Van Roosmalen, Erica. 2000. "Forces of patriarchy : Adolescent experiences of sexuality and conceptions of relationships". *Youth & Society*, Vol. 32. pp202-228.
- Zimmerman, Rich S. & Sprecher, Susan. 1995. "Adolescent's perceivedability to say 'no' to unwanted sex.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95. 383-400.